레바논 청년들 직접 만난 교황…"록스타급 환영 받아"

1만5천명 운집…희망·평화 당부

폐쇄형 방탄차 타고 경호 강화

교황 레오 14세가 첫 해외 순방으로 레바논을 방문해 현지 청년들과 직접 만나 희망의 메시지 를 전하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로이터·AFP·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 간) 레바논 베이루트 북쪽 브케르케에서 마로니 트 가톨릭 총대주교청 주최로 열린 청년 행사에 는 주최 측 추산 청년 1만5천명이 참석해 교황에 게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위기에 직면한 레바논 청년들의 발언을 들은 레오 14세는 "여러분은 물려받은 세상보다 더 나 은 세상을 세울 수 있다"며 "여러분에게는 역사 와 흐름을 바꿀 열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 바논의 젊은이들이여, 삼나무처럼 강하게 자 라나 희망으로 세상을 꽃피우고 나라가 기다 리는 희망의 근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여러분 안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희망이 있다"며 "여러분은 더 많이 꿈꾸고 계획 하고 좋은 일을 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레바논에서는 2019년 시작된 극심한 경제 위 기와 2020년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 이 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민이 나라를 떠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



1일(현지시간) 레바논 브케르케의 안티오키아 마론파 총대주교청 앞 광장에서 젊은이들과 만남을 갖는 교황 레오 14세의 모습. 교황 레오 14세는 교황으로 선출된 후 이탈리아 밖으로 첫 순방을 떠났으며 터키에 이어 레바논으로 순방을 이어갔다. /EPA=연합뉴스

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을 찾은 교황은 청년들에

게 '록스타'급환영을받았다고 AFP는 전했다. 교황을 보려고 몰려든 청년들은 휘파람과 박

수를 보내며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

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테파니 나스르(25)는 교황의 말에 "매우 감 동했다"며 "평화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레바논과 젊은이들이 보여온 끈질긴 회복 력과 연대를 인정해주는 말이었다"고 AFP에 말했다.

또 레오 14세는 1975-1990년 레바논 내전 당시 전 선 지역인 '그린라인'에 있는 순교자 광장에서 레 바논의 여러 종교 공동체 지도자들을 만나 "평화 를 건설하는 이들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종소리, 모든 아잔(이슬람교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 모든 기도 소리가 하 나의 높고 장엄한 찬가로 어우러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지난 5월 즉위한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레 오 14세는 지난달 27일부터 튀르키예와 레바논 을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레오 14세는 2일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현장에서 기도하고, 베이루트 해안에서 10만명이 모이는 미사를 집 전할예정이다.

그는 수년간 분쟁, 정치 공백, 경제 파탄에 시 달린 레바논 방문을 '평화의 사명'이라고 표현

레오 14세는 지붕 없는 개방형 차량을 주로 사 용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과 달리 폐쇄형 방탄 차를 타고 레바논에서 이동했다. 레바논 곳곳에 서 군 병력이 교황의 차량 행렬을 따라 배치되 는 등 경비가 강화됐으나 시민들의 환대는 뜨 거웠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WHO, 비만치료제 조건부 권장…접근성 부족 경고

"비만, 평생에 걸쳐 치료···만성 질환"

세계보건기구(WHO)가 1일(현지시간) 처음 으로 비만 치료제로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GLP-1) 사용 지침을 제시하고 장기 치료의 일 부로서 이를 조건부로 권장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 운자로 등 당뇨·비만 치료제로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의약품이 모두 GLP-1 계열이다. 각국 정부는 이들 의약품을 공공의 료 체계에 어떻게 도입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로이터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를 제외한 성인들의 비만 치료를 위해 GLP-1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법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제 시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은 의약품과 함께 건 강한 식단, 신체 활동과 같은 개입을 제공하도 하는 자발적 라이선싱, 더 가난한 나라에서는 록하는 것이다.

성인에 대해 적용되며, 세마글루타이드(위고 문했다.

비·오젬픽)와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리라 글루티드(빅토자·삭센다) 등 세 가지 성분에 해당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 무총장은 "우리의 새로운 지침은 비만이 포괄 적이고 평생에 걸쳐 치료할 수 있는 만성 질환 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약품만으로는 이같은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GLP-1 의약품이 수 백만 명이 이 질환을 극복하고 관련 피해를 줄 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WHO는 공급이 주요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짚 었다. 생산 급증에도 2030년까지 GLP-1 요법의 WHO는 첫 번째 조건부 권고 사항으로 임신부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10% 미만만 실제로

WHO는 이번 지침에서 각국과 기업이 특허 의약품에 대해 더 저렴한 복제약 제조를 허용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별 가격 이같은 권고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책정 등 접근성 확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

러, 지난달 우크라서 1년새 최대면적 영토 장악

에너지 · 민간시설 공습도 계속

러시아가 지난달 1년 새 가장 넓은 우크라이 나 영토를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AFP 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국 전쟁연구 소(ISW)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달 러시아가 점령한 면적은 701㎢로 지난 1년간 최대였다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후 초기 몇 개월을 제외하고 개전 이후 2024년 11 월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점령한 것이다.

지난달 자포리자주에선 앞선 4개월간 확보한 영토를 합친 것과 맞먹는 272㎢를 차지했다.

영토의 19.3%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월 침공 전 이 비율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 약 7%였다.

올해 들어 러시아가 차지한 땅은 5천400㎢에 육박한다. 전년 동기보다 거의 2천㎢ 넓은 면적

러시아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 재로 외교적으로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은 가운 데 군사적 진전을 본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이 점령하지 않은 땅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 를 양보받아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의 약 81%를 통제 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방어 및 병참 요충지인 포트로우스크 함락을 위해 공 세를 퍼붓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습도 이 어가고 있다. 이날 러시아 미사일이 드니프로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타격하면서 4명이 사망했으며 중상자 11명을 포함해 40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과 주택

등민간시설물에 대한 공격도이어가고 있다.

드니프로 공격 전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에 따 르면 지난 밤사이 러시아는 드론 89대를 쐈다. 1 1월 한달 동안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은 100발, 장하는 지역이다.

정찰 또는 공격용 드론은 9천588대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 격을 늘리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우크 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 시설에 가한 드론 공습 이 최소 1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 /연합뉴스

'영유권분쟁' 센카쿠서도 중·일갈등 고조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 로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일본 어선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 고주장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일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해에 진입했 다"며 "중국해경함정이법에따라필요한통제조 치를하고경고·퇴거를실시했다"고밝혔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 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 -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